

전주 전통한지 삽입 지역교과서 확대 보급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임실·완주·부안 4개 시·군

전주 전통한지가 삽입된 지역사회 교과서가 도내 4개 시·군으로 확대 보급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은 그동안 전주, 완주, 임실 등 기존 3개 시군에 배포했던 '전주 전통한지 삽입 지역사회 교과서'가 올해 부안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담에 따르면 지난해 김천중, 감삼중, 김안수, 최성일 등 전주한지장 4인이 직접 제작한 전통한지 2200여 장(A4 기준 1만2500여 장), A4 크기 색한지 2만2500여 장을 지역 사회교과서로 보급한 바 있다.



전주 전통한지 삽입 지역사회 교과서.

각각 삽입됐다.

전주의 경우 삽화로 그려진 가로 385mm, 세로 270mm 크기의 전주지도 형태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지역 사회교과서 '우리고장 전주'에 삽입됐다.

임실군은 편지지 형태, 완주·부안군의 경우 간지 형태로 '우리고장 임실', '우리고장 완주', '우리고장 부안' 지역교과서로 각각 제작·보급됐다.

전당은 그동안 2017년부터 전통한지의 지역교과서 공급 뿐 아니라 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유발과 참여 확대를 위해 ▲'찾아기는 전주한지 이야기' 프로그램 ▲한지로 만든 전주지도 액자 기증 행사 ▲한지 부채만들기 ▲한지 손글씨 ▲한지 공예품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왔다.

올해는 부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부안군 내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전주한지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태 원장은 "전주 전통한지의 확산 보급을 위해 임실군과 손을 맞잡았고, 추가로 완주군까지 확대했다"며 "전통한지 확산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전통한지 지역 사회교과서 보급사업'을 타 지역으로 더욱 넓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3년 연속 한복문화 지역거점 공모 선정

국비 9000만원 확보

지난해 한복체험관 화인당 개관에 이어 한복문화 봄 주간, 가을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아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남원시가 3년 연속 한복문화 지역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수 있으며, 행사에서는 한복문화를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는 한복시정회, 한복리폼, 옛 추억 한복 입고 따라 하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보여줄 계획이다.

또한 일상 속 한복문화가 남원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을과 학교를 찾아 가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앞으로 한복체험관 화인당을 중심으로 상설프

로그램 운영, 미래세대를 위한 한복교육 등 남원만의 한복문화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양인환 관광과장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한복문화를 새로운 문화 자원으로 꽃 피워, 한복도시 남원과 한복의 멋스러움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여류화가회 단체전 개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4월 3일까지 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여류화가회(회장 서희정) 단체전 '봄! 봄! 다시 봄!'을 전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여성작가

특유의 감수성과 섬세함을 화폭에 담은 회화 작품을 전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군산 여류화가회는 지난 2012년에 결성된 지

역 여성 미술단체로 14명의 작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수차례의 초대전과 정기전을 추진하는 등 군산 여성 미술계의 버팀목으로서 꾸준히 작품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의 따스함과 새로움을 표현한 '노랑이 물든 마을', '고향의 봄', '환희' 등의 서양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봄맞이 상설 전시 '안녕, 봄'展 개막

정읍시 다·라미술관, 4월 30일까지 14점 전시

정읍시가 운영하는 다·라미술관이 10일 봄맞이 상설 전시 '안녕, 봄'展을 개막했다.

다·라미술관은 컨테이너에 유리를 설치해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만들어진 작은 미술관으로 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중 봄기운 가득한 작품 14점을 선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

상설 전시 '안녕, 봄'은 세한삼우에 포함된 소나무와 매화 작품을 통해 봄의 시작을 표현하고, 다양한 색감의 봄꽃과 생명이 묘사된 작품을 전시해 봄 내음 가득한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 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휴관일 없이 신태인을, 연지동, 수성동 3개소에서 관람할 수 있다.

단, 주간에는 햇빛에 의한 작품 손상을 막기 위해 신태인은 16시부터, 연지·수성 17시부터 22시까지 감상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 개관한 다·라미술관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공간에 위치해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고도 작품을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각종 미술 전시회가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실외라는 공간적 장점으로 감염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시와 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063-539-6420 / 64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따뜻한 봄날 다·라미술관 상설 전시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북 최초로 구축된 '간이 상설미술관'으로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다양한 예술을 향유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미술관에서는 시설 공사로 휴관 중인 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상설 체험프로그램인 '미술관 드로잉 피크닉'을 운영한다.

미술관 앞마당에 마련된 야외 체험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체험자가 자율적으로 체험 키트를 수령하고 체험 후 반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이 오는 26일 오후 3시 2022년도 첫 공연으로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을 기획으로 선보인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은 2009년 초연 이후 13년째 1천석 이상 중·대형 극장을 전국투어는 물론 연극 최초 해외(뉴욕, LA) 공연 등 누적 관객 80만 명을 넘어선 우리나라 대표 스테디셀러 연극으로 매년 매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방송계 국민배우 강부자와 연극계 명품배우 장하란의 핫한 만남으로 펼쳐질 이번 공연은 '가족'에게는 그 어떤 힘든 시기도 헤쳐 나갈 '기적 같은 힘'이 있음을 한편의 안방드라마 같은 무대로 현실감 넘치는 활력 모녀 호흡을 보여 줄 예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인 김제시민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감동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시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객석 거리두기 좌석제(50%)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역 소독과 발열 체크 등 공연장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3월 15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